

저소득 수급자 노후주택 수리

순창군, 4억5000만원 투입... 현재 노후주택 66가구중 60곳 완료

순창군이 올해 주거급여 수선집수리 사업으로 4억5000만원을 투입해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사업은 주거취약계층인 주거급여수급자 중 본인집에 살고있는 자가거구를 대상으로 한다. 군은 겨울이 오기 전 따뜻한 주거복지 실현을 위해 사업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군은 수선보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해 지난 2월에 한국토지주택공사 전북지역본부와 사업시행 위 수탁협약을 체결해 5월부터 본격적인 공사에 착수했다. 11월말에 마무리될 예정인 이번 사업은 현재 66가구 중 60가구가 완료돼 91% 공정률로 사업 마무리 단계다.

수선집수리사업은 구조안전, 설비상태, 마감상태 등 주택상태를 종합적으로 점검해 보수범위를 경, 중, 대보수로 나눠 3년에서 7년을 주기로 378만 원부터 1,026만원 이내에서 지원한다. 지원항목은 지붕수선, 욕실개량, 외벽



순창군은 저소득층 집수리 사업으로 높은 호응을 얻고 있다.

단열, 난방, 창호교체 및 화장실 교체 등이다. 장애인거주는 장애인 편의시설을 추가로 지원한다.

주거급여는 그간 부모 등 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의 부양 능력도 보았으나 올 10월에 지원기준 개편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됐다.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43% 이하(1인기준

71만9천원, 4인기준 194만3천원) 기준만 충족되면 선정이 가능하다.

순창군 관계자는 "열악한 농촌의 오래된 노후주택에서 더 어렵게 사는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지속적인 관리와 지원을 강화하는 등 촘촘한 주거복지 안전망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임실군, 영산식품 장류체험관 숙소 낙성 봉고식

창립 30주년 행사 병행

임실군은 지사면에 위치한 영농조합법인 영산식품이 창립 30주년 행사 및 장류체험관 숙소 낙성 봉고식을 지난 28일 거행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날 영산식품에서 열린 장류체험관 숙소 낙성 봉고식에는 박진두 임실부군수를 비롯하여 김혜봉 원불교 전북교구장 차타원 김복환 종사 및 지역 기관단체장들과 주민 등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축하의 뜻을 전했다.

이번에 낙성식을 가진 장류체험관은 일인가족 증가 등 장류소비 감소에 따른 경쟁력 확보와 지역주민 소득증대를 위해 마련됐으며, 지난 2016년 지사면 십이연주권역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5억3천여만원을 투입해 265㎡규모로 신축된 발효체험



임실군 지사면 위치한 영산식품이 창립 30주년 행사를 거행했다.

장이다. 체험장에서는 된장, 간장, 고추장 등 장류 담그기 체험과 메주 만들기, 청국장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다.

박진두 부군수는 "영산식품의 창립 30주년 축하와 함께 이곳 장류 발효

체험장의 다양한 해독프로그램을 통하여 현대인의 몸과 마음의 피로를 치유하는 명소로 우뚝 서기를 바라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공동체 활동 공간으로 더욱 활성화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임실=진홍영 기자

임실군, 양지지구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

임실군은 성수면 양지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을 완료했다고 30일 밝혔다.

국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시행하는 국가사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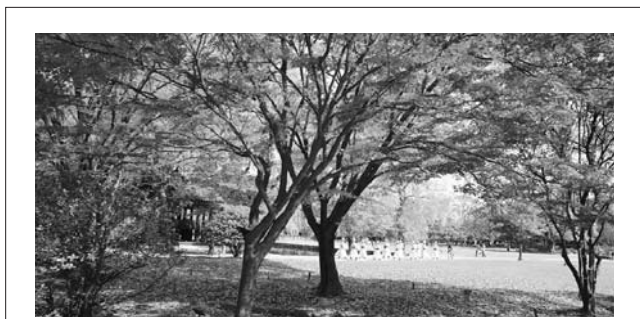
이 사업을 통해 토지의 실제현황과

일치하지 않는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바로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할 수 있다.

"양지지구(437필지/13만3,182㎡) 사업완료에 따라 새롭게 작성된 지적공부로 대민 서비스가 가능해지고 토지소유자 간의 분쟁 및 지적경계의 불합합을 해소하게 돼 토지소유자의 재

산권 보호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현재 추진 중인 이도1지구(임실읍 이도리 일대)를 비롯해 내년 사업지구도 차질 없이 추진될 예정이며, 주민들의 재산권 보호에 힘쓰겠다"며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당부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임실군청 민원봉사과(063-640-2273)로 문의하면 된다. /임실=진홍영 기자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 광한루원이 가을 단풍을 수려하게 물들었다.

단풍이 수려하게... 광한루원을 붉게

관광객과 시민에게 가을 정취 선사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이자 시민들의 가을 나들이 명소인 광한루원이 가을 단풍을 만끽할 수 있도록 수려하게 물들었다.

이를 위해 남원시 시설사업소에서는 다양한 낙엽 거리를 조성해 광한루원을 찾는 관광객과 시민들에게 아름다운 가을정취를 특별 선사하고 있다.

광한루원은 아름다운 주변 경치에 매료된 선조들께서 신선이 사는 이상향을 지상에 건설하고자 조성한 조선시대 대표적인 정원의로서, 울긋불긋하게 물든 가을단풍은 광한루, 안월정 등의 누각과 초가 월매집이 잘 어울리면서 광한루원의 또 하나의 자랑거리가 되었다. 춘향관 영상실에서는 광한루원에서 촬영된 영화 및 드라마

마 포스터 19점을 오는 11월 15일까지 "스크린에 비친 광한루원"이라는 주제로 전시하고 있어 관광객에게 볼거리를 더해주고 있다. 한편, 광한루원은 대한민국 100경에 드는 명승지로서 전국의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남원의 대표적인 관광지로서 보물 제281호 및 명승 제33호로 지정되어 있다.

이에 남원시는 시민들의 사랑과 자긍심이 높은 유서 깊은 문화유산이 많은 곳으로 칭허부라 명명된 광한루 정문을 상시 열어놓아 정문 앞을 지나는 차량과 통행인에게 남원의 자랑거리인 광한루원 경관을 볼 수 있도록 운영하며 관광지 만족도를 높여 가고 있다. /남원=김기두 기자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는 의정활동·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연찬회를 개최했다.

남원시의회 총무위, 연찬회 개최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 11월 13일부터 12월 4일까지 개최 제227회 남원시의회 총무위원회(위원장 한명숙)는연찬회에서는 원활한 의정활동과 효율적인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감사기법과 분야별 착안사항을 논의했으며, 감사자료 분석과 분임토의, 정보교환을 통해 남원시 행정사무 전반을 살폈다.

한명숙 총무위원장은 "이번 연찬회는 비효율적인 행정 및 예산낭비 사례를 사전 점검해 내실있는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하는 중요한 활동이며, 집행부가 추진한 정책과 사업이 합리적으로 진행되었는지 세심하게 점검해 문제점은 바로잡고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남원=김기두 기자

지역 매아리

순창군 개별공시지가

2018년 결정·공시

순창군이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198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한다.

군은 2018년 7월 1일 기준, 수시분 개별공시지가 조사대상 필지에 대해 지난 6월부터 10월 30일까지 토지특성조사와 지가산정, 그리고 감정평가사료 하여금 개별토지에 대한 검증 절차를 마쳤다.

이에 따라 군은 31일부터 다음달 30일까지 이의신청 기간을 운영해 결정·공시된 땅값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 및 그 밖의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이의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군청홈페이지(<http://www.sunchang.go.kr>) 및 민원과 또는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민원실에서 지가 열람이 가능하며, 이의신청 방법은 정부24(www.gov.kr)에 접속하면 된다.

또한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와 군청 민원과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토지소재지 읍·면사무소 또는 군청 민원과에 방문하거나 팩스(063-650-1429)로 제출하면 된다. /순창=이양원 기자

순창군의회 임시회 폐회

순창군의회(의장 정성균)는 30일 제2차 본회의를 개최하여 8일간의 제236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지난 23일 개최한 이번 임시회에서는 2018년도 하반기 군정주요사업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동의안 및 의견청취의 건 등을 처리하며 활동적인 의정을 펼쳤다.

이날 2차 본회의에서는 군정주요사업 실태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손준석)에서 4일간의 일정으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주요 사업장 등의 현장조사에 따른 결과를 제시한 보고서를 의결하였고, 산업복지위원회에서 심사한 1건의 동의안, 2건의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원안, 찬성 의견을 의결하였다.

한편 정성균 의장은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정례회에 예정된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2019년도 예산안 심사가 보다 심도있고 내실있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하여 내년도 신규 사업에 대한 충분한 타당성 검토와 주민여론을 수렴한 예산편성을 당부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구독 · 광고문의
063-288-9700

대한민국 치즈의 수도

임실 치즈

벨기에 출신 자정환 신부(Didier 'Serstevens')가 국내 최초로 개발 보급한 한국 치즈산업의 원조 임실치즈, 신선한 원유와 40년 이상의 가공기술력으로 만든 임실치즈는 맛이 고소하고 담백하여 어린이, 노약자의 영양간식으로 매우 좋습니다.